

한국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Korean Mothers' Fervor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with
a Focus on th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부원장 김 송 이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Vice Director : Song Yee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thers' perceived social pressure regard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social conspicuousness, competitiveness, and self-esteem on the mothers' fervor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se effects were analysed separately by residential area. A total of 231 mothers who had children attend middle school at Mok-dong and Ahyun-dong surveyed by questionnair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mothers' residential area. Mok-dong mothers have a higher perceived social pressure about child education, self-esteem, education fervor for their child, and monthly income and fathers' and mothers' education level than Ahyun-dong mothers. In Mok-dong mothers, onl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significantly explained the mothers' education fervor. Specifically, monthly income and fathers' education level were positively related to education fervor of Mok-dong mothers. Ahyun-dong mothers' social pressure about child education and self-esteem significantly explained mothers' education fervor for their child after controlling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positive social pressure and positive self-esteem were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education fervor about their child.

주제어(Key Words): 자녀교육열(education fervor),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 경쟁 성향(competitiveness), 과시 성향(social conspicuousness), 자아존중감(self-esteem), 사회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Author : Song Yee Kim,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e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481 Fax: +82-2-393-1396 E-mail: ssong@yonsei.ac.kr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비 지원(KRF-20005-079-BM0020)을 받아서 이루어졌음.

I. 서론

우리 어머니들은 전통적으로 '맹모삼천지교'를 따르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삼고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열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한국 사회의 모습을 특징지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은 자녀를 위해서 학군과 학원이 좋은 지역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하고, 빚을 저서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다른 아이들은 상관없이 자기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현대판 '맹모삼천지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육열'은 예전의 긍정적 의미가 아닌, 치맛바람, 과열된 사교육 열풍, 지나친 입시경쟁, 더 나아가서는 조기유학이나 기러기 아빠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잉 교육열 현상은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나 능력 개발 및 신장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교육목적 의식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개인 간 또는 가정 간에 벌어진 학력과 학벌의 경쟁으로 나타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는 구별된다(오옥환, 2000).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력과 학벌에 따라 직장에서의 임금과 승진 뿐 아니라, 결혼과 관련해서조차 차별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학력에 대해 얼마나 외골수적인 집착을 해 왔는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데 있어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신정아 사건'을 통해 학력위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가족이기주의와 접목되어 '내 자식만은'이라는 특별한식을 형성하였다.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 부모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교육비 규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999년 66%에서 2003년 85%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상위 소득 및 소비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격차도 5~8배에 달해 가구의 경제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신문, 2007. 8. 27일자). 과잉 교육열과 관련하여 이처럼 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지만, 통계청(2004) 자료에 따르면, 가구의 77.2%는 가계를 꾸려 가는데 부담이 될 정도로 교육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고, 거의 모든 계층에서 수입의 1/3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로 교육비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계층과 상관없이 자녀교육에 자신의 능력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비뚤어진 교육열 현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과잉 교육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학자들은 교육열의 형성 배경과 관련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교육열의 실재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 대부분이 적은 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문화기술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증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현 주, 이재분, 이해영, 2003). 게다가 교육열의 형성 배경 및 요인들을 사회심리학적 혹은 심리학적 접근한 연구는 교육열을 자녀교육을 통한 부모의 욕구 충족으로 본 김동석(1990)의 연구,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온 동조 현상(한성열, 1994)과 한국사회의 집단순응 현상(추병식, 1998)으로 본 연구 등으로 소수이다(현 주 외, 2003, 재인용). 또한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교육열 표출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므로(김경근, 2003),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교육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녀교육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열의 개념은 크게 교육에 대한 욕구, 욕망, 열의, 열기 등의 '취학하고자 하는 욕구'(오옥환, 2000)로 연구되거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그 열망이 표출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김영화, 이인효, 박현정, 1993)으로 정의되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학 진학이라는 한가지 목적을 지향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우리나라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동기체제이기 때문에(현 주 외, 2003) 자녀교육동기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어머니들이 가지는 열의보다는 그러한 자녀교육열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표출되는가에서 과잉 교육열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영화 외(1993)의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교육열을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실제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실제 김영화 외(1993)의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모든 계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학부모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열의 강도와 실제로 이것이 표출되는 양상은 계층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진학에의 열의나 자녀교육지원 행위, 자녀들이 받는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비가 더 높아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에게서 교육열이 더 높게 나타났다(정영숙, 1996; 현 주 외,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으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교육열을 설명함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지역과 같은 구조적 변인들에만 초점을 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의 교육열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교육행위로 촉발시키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대로 거의 모든 계층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과잉 투자를 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과잉 교육열이 학부모에게 있어 자신도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나의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고 살 능력이 없어도 또래 집단에서 소외당하기 싫어서 또래 집단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또래 압력(peer pressure)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도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증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김정근(2003)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교육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친구, 친지, 그리고 이웃 주민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 근린동조성을 띠며, 그 이유는 한국인의 삶이 일상화된 불안, 초조함, 조급증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지혜(2004)는 학부모의 조기 교육열과 관련하여 실제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동기에서 비롯되는데, 이 중에서 주변 사람들의 자극이 조기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주된 계기라고 하였다. 이처럼 교육열은 학부모들의 독자적 행위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조와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거쳐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표출되므로(김지수, 2002),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정도에 따라 실제 어머니가 표출하는 교육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잉 교육열이 팽배해있긴 하지만,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서 차이가 나고, 이러한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에서의 차이가 자녀교육 실제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또한 교육열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교육문화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대적 성격이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용한다(강창동, 1996). 즉 교육열은 교

육에 대한 지각, 인지 및 교육관 등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실적으로 발현하게 하는 실천적 성격을 지니므로 교육열의 본질적 측면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과잉 교육열이 우리 사회에 또 달리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과시 현상과 맥을 같이 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현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과시(誇示)가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고려할 때 할 수 없는 것도 무리를 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열 현상은 일종의 사회적 과시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열도 역시 개인의 인성이나 욕구가 과시를 유발한다고 보는 심리적 접근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압력이 같은 상황 하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과시적 성향이 강한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신의 과시적 욕구로 인해서 빛을 내서라도 자녀를 교육시키려 하는 과도한 교육열을 보일 수 있을 것이며, 경쟁적 성향이 강한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곡된 교육열을 표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과잉 교육열과 사회적 과시의 분위기에 불구하고 모든 부모가 이러한 사회적 압력의 흐름에 따라가지는 않으며, 그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어머니의 사회적 과시 성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과잉 교육열을 촉진시킨다고 본다면, 같은 사회적 압력 하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교육관에 기초하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특성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신념이나 생각, 즉 자기 지식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며 개인이 어떠한 자아개념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김용희, 1993) 자아는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인데,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여기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 정도가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 지도력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은 높으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라도 당황하지 않으며 실패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으며, 타인들을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우하고,

타인들의 복지에 공헌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는 어머니들은 열등감이 있는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주변의 압력에 영향받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녀교육열이 높다고 보도되어 온 서울의 목동 지역과 그렇지 않은 강북 지역의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 정도를 측정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자녀교육에 관해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 그리고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 및 자아존중감이 실제 자녀교육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에도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인식 및 어머니 개인 내적 특성이 교육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자녀교육열 현상을 설명해봄으로써 교육열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 하에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거주 지역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은 차이가 있는가?
- 둘째, 거주 지역별 어머니 자녀교육열은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셋째,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자녀교육열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은 거주 지역별로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서울시에서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높다고 여겨지는 지역(양천구 목동)과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역(서대문구 아현동)⁵⁾을 유의 표집하고, 이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를 각각 1곳 씩 임의 표집하였다. 최근 특목고와 관련하여 중학교 2, 3학년의 경우 교육환경이 임시 위주로 편향되어 있어서 표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선정된 두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 390명(목동 180명, 아현

동 210명)에게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에서 326부가 수거되어 회수율은 83.6%(목동 94.4%, 아현동 74.3%)이었다. 이 중에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응답한 자료 17부와 응답이 불충분한 7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3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대상은 자녀가 목동의 중학교에 다니는 어머니 120명(51.9%)과 자녀가 아현동의 중학교에 다니는 어머니 111명(48.1%), 총 231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41세($SD = 3.5$)였으며, 본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가 남아인 경우가 69명(29.9%), 여아인 경우가 162명(70.1%)이었다. 연구 대상의 교육수준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목동 어머니의 경우 대졸(54.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고졸(25.8%)이었고, 아현동 어머니의 경우 고졸(62.2%)이 가장 많았다. 목동 아버지들은 대졸(60.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졸 이상(20.0%)이었으며, 아현동 아버지들은 대졸이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졸(37.8%)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목동 어머니들은 전업주부/무직(62.5%), 사무직(18.3%)의 순이었고, 아현동 어머니들은 전업주부/무직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무직(26.1%), 판매직(18.0%)의 순이었다. 목동 아버지들은 관리직/전문행정직(55.8%), 사무직(23.3%)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현동 아버지들은 사무직(28.8%), 관리직/전문행정직(27.9%)의 순이었다. 가구 월 소득은 목동의 경우 평균 5,212,500원($SD = 168.49$)이었으며, 아현동의 경우 평균 3,846,900원($SD = 150.72$)이었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 도구

1) 자녀교육열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은 김영화 외(1993)의 개념 정의에

⁵⁾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기홍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인 '2007학년도 외고 신입생 거주지별 학생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외고 신입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11.6%), 강남구(9.7%), 양천구(8.1%), 송파구(5.8%), 도봉구(4.1%), 서초구(4.1%), 강동구(3.4%), 광진구(3.1%), 성북구(2.5%), 서대문구(2.3%), 강북구(2.1%)의 순이었다. 그리고 학원 수강료 총액 역시 외고 진학생이 가장 많은 노원, 강남, 양천구의 순이었다(헤럴드경제, 2007. 10. 9일자). 또한 2005년 서울통계연보의 교육서비스업체 수를 살펴보면, 양천구에는 총 1,414곳이 있었고, 그 중에서 목동에 515곳(36.4%)의 교육서비스업체가 있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경우 총 802곳이 있었고, 그 중에서 아현동에 73곳(9.1%)의 교육서비스업체가 있었다(서울특별시, 2005).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자녀교육열이 높다고 여겨지는 지역으로 양천구의 목동,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녀교육열이 낮다고 여겨지는 지역인 서대문구 중에서 아현동에 있는 중학교를 임의 표집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31)

	목 동(n = 120)		아편동(n = 111)		
	어머니 빈도(%)	아버지 빈도(%)	어머니 빈도(%)	아버지 빈도(%)	
교육수준	중졸 이하	1 (0.8)	1 (0.8)	1 (0.9)	0 (0.0)
	고 졸	31 (25.8)	15 (12.5)	69 (62.2)	42 (37.8)
	초대졸	16 (13.3)	7 (5.8)	10 (9.0)	11 (9.9)
	대 졸	65 (54.2)	73 (60.8)	28 (25.2)	48 (43.2)
	대학원 이상	6 (5.0)	24 (20.0)	3 (2.7)	10 (9.0)
	무응답	1 (0.8)	0 (0.0)	0 (0.0)	0 (0.0)
직업	전업주부/무직	75 (62.5)	3 (2.5)	44 (39.6)	0 (0.0)
	비숙련직/반숙련직	3 (2.5)	1 (0.8)	10 (9.0)	3 (2.7)
	숙련직	2 (1.7)	4 (3.3)	5 (4.5)	25 (22.5)
	판매직	10 (8.3)	14 (11.7)	20 (18.0)	20 (18.0)
	사무직	22 (18.3)	28 (23.3)	29 (26.1)	32 (28.8)
	관리직/전문행정직	6 (5.0)	67 (55.8)	3 (2.7)	31 (27.9)
	무응답	2 (1.7)	3 (2.5)	0 (0.0)	0 (0.0)

기초하여 류향곤(2004)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녀교육열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교육기대 수준과 자녀에게 투자하는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으로 측정하였다.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은 학교급 6단계(1: 고등학교, 2: 전문대학, 3: 대학교, 4: 대학원 석사, 5: 대학원 박사, 6: 해외 유학)별로 5점씩(범위: 5점~30점)을 부여하였고,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은 12단계(1: 사교육비 지출 없음, 2: 10만원 미만, 3: 20만원 미만, 4: 30만원 미만, 5: 40만원 미만, 6: 50만원 미만, 7: 60만원 미만, 8: 70만원 미만, 9: 80만원 미만, 10: 90만원 미만, 11: 100만원 미만, 12: 100만원 이상)별로 3점씩(범위: 3점~36점)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부여된 두 점수를 합산하여 자녀교육열 점수를 산출하였다. 자녀교육열 점수는 총 66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

어머니가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본인이 사는 지역의 학부모 교육열이 다른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어떠한지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 ‘훨씬 낮다(1점)에서 ‘훨씬 높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과외를 대부분 하니까 안하면 불안해서 자녀를 과외시킨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두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 점수(범위: 2점~10점)를 산출하였다. 사회적 압력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

력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안범희(1985)의 대인관계 성향 질문지 중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맡은 역할 성향, 사회관계 성향, 표현 성향을 측정하는 7가지 하위 요인(지배, 독립, 동정, 사교, 경쟁, 과시, 반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7개 하위 요인 중에서 과시의 6문항으로 어머니의 과시 성향을, 경쟁의 6문항으로 어머니의 경쟁 성향을 측정하였다. 과시 성향은 자기노출, 과장, 전시, 자기자랑, 흥분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 성향은 간섭을 싫어하고 자기 싫어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에 따른 점수가 높으면 점수를 받은 영역의 대인관계 성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과시 성향은 .64, 경쟁 성향은 .71 이었다.

4)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8번 문항(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 전체 문항과 부적 상

관을 보여서 이 문항을 제외하고 총 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5)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구 평균 월 소득과 어머니 및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원 단위로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및 졸업,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2년제 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 중퇴 및 졸업,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및 졸업,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및 졸업의 항목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 교육수준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 교육연한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를 위해서 2007년 9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선정된 중학교 두 곳의 1학년생들을 통해 이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9월 14일에 수거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거주 지역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거주 지역에 따라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 및 자아존중감이 자녀교육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거주 지역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거주 지역에 따른 측정 변인들에서의 차이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녀교육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거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자녀교육열은 아현동 어머니들에 비해 목동 어머니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아서($F_{1,229} = 26.78, p < .001$), 자녀교육수준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 목동 어머니들이 아현동 어머니들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관해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도 목동 어머니는 7.09, 아현동 어머니는 5.50으로, 아현동 어머니들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압력을 보통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으나 목동 어머니들은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보통 이상의 높은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F_{1,229} = 91.96, p < .001$).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의 경우, 목동 어머니는 2.37과 2.29, 아현동 어머니는 2.35와 2.32로 두 거주 지역 어머니들 모두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두 집단 어머니 모두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아현동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_{1,229} = 5.20, p < .05$). 또한 연구 대상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목동 가정의 평균 월 소득은 521만원, 아현동 가정은 384만원으로 목동 가정의 월 소득이 아현동 가정

<표 2> 거주 지역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차이

(N = 231)

	목 동(n = 120) M(SD)	아현동(n = 111) M(SD)	F
자녀교육열	43.60 (11.42)	35.96 (11.00)	26.78***
사회적 압력	7.09 (1.28)	5.50 (1.23)	91.96***
과시 성향	2.37 (.48)	2.35 (.52)	.20
경쟁 성향	2.29 (.53)	2.32 (.63)	.12
자아존중감	3.83 (.48)	3.68 (.50)	5.20*
월 소득	521.25 (168.49)	384.68 (150.72)	41.90***
교육수준(부)	15.89 (2.24)	14.65 (2.58)	15.40***
교육수준(모)	14.77 (2.05)	13.37 (2.09)	26.31***

* $p < .05$. *** $p < .001$.

의 월 소득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_{1,229} = 41.90, p < .001$). 아버지들의 교육수준을 교육연한으로 알아본 결과, 목동 아버지들($M = 15.89$)이 아현동 아버지들($M = 14.65$)에 비해 더 오랜 기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_{1,229} = 15.40, p < .001$). 그리고 목동 어머니들($M = 14.77$)이 아현동 어머니($M = 13.37$)에 비해 더 오랜 기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_{1,229} = 26.31, p < .001$).

2.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

자녀교육열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거주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목동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열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압력($r = .28, p < .01$), 과시 성향($r = .24, p < .01$), 경쟁 성향($r = .26, p < .01$), 가구 월 소득($r = .46, p < .001$), 아버지 교육수준($r = .49, p < .001$), 어머니 교육수준($r = .32,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많이 인식하고, 대인관계에서 과시적이고 경쟁적인 성향이 강하고, 가구의 월 소득이 높고, 남편과 자신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의 정도는 어머니의 과시 성향($r = .27, p < .01$) 및 경쟁 성향($r = .27,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서, 어머니가 대인관계에서 과시적이고 경쟁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남편의 교육수준 및 자신의 교육수준($r = .34, p < .001; r = .3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 소득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서($r = .46, p < .001; r = .32, p < .001$),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월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현동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교육열은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어머니의 경쟁 성향을 제외하고, 과시 성향($r = .20, p < .05$), 자아존중감($r = .21, p < .05$), 가구 월 소득($r = .42, p < .001$),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r = .32, p < .001; r = .27,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졌다. 즉 어머니가 대인관계에서 과시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 월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은 월 소득($r = -.21, p < .05$) 및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r = -.22, p < .05; r = -.30,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구 월 소득이 낮고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r = .25, p < .0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소득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서($r = .48, p < .001; r = .49, p < .001$),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월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 및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자녀교육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과 어머니 개인 내적 특성인 과

<표 3> 거주 지역별 측정 변인들 간 상관

(N = 231)

	목 동 (n = 120)							아현동 (n = 111)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자녀교육열														
2. 사회적 압력	.28**							.07						
3. 과시 성향	.24**	.27**						.20*	.03					
4. 경쟁 성향	.26**	.27**	.60***					.17	.07	.64***				
5. 자아존중감	.15	.05	-.03	-.05				.21*	-.16	.04	-.01			
6. 월 소득	.46***	.18	.16	.11	.17			.42***	-.21*	.13	.04	.15		
7. 교육수준(부)	.49***	.16	.12	.15	.34***	.46***		.32***	-.22*	.11	.10	.10	.48***	
8. 교육수준(모)	.32***	-.02	.16	.10	.35***	.32***	.52***	.27**	-.30***	.05	.02	.25**	.49***	.7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자녀교육열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 및 자아존중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목동(n = 120)		아현동(n = 111)	
	1단계 β	2단계 β	1단계 β	2단계 β
월 소득	.31***	.28**	.34***	.34***
교육수준(모)	.06	.09	-.00	.00
교육수준(부)	.30**	.28**	.16	.16
사회적 압력		.14		.19*
과시 성향		.03		.07
경쟁 성향		.12		.09
자아존중감		-.02		.17*
R^2	.32	.37	.19	.27
ΔR^2		.05		.08*
F	17.85***	9.16***	8.28***	5.36***

* $p < .05$. ** $p < .01$. *** $p < .001$.

시 성향과 경쟁 성향,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거주 지역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에 가구 월 소득,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을 투입하여 전체적으로 자녀교육열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과 어머니 내적 특성 변인들을 투입하였다²⁾.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목동 어머니들의 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서 자녀교육열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은 가구 월 소득($\beta = .31, p < .001$)과 아버지의 교육수준($\beta = .30, p < .01$)으로 월 소득이 많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의 자녀교육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2%이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의미있는 변인들이 모두 자녀교육열을 의미있게 설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투입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압력 및 어머니 개인 내적 변인들은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전체 설명력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요약하면, 목동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압력의 정도나 어머니 개인 내적

변인들보다는 가구 월 소득과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쳐서, 가구 월 소득이 많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현동 어머니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 중에서 월 소득($\beta = .34, p < .001$)만이 자녀교육열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가구 월 소득,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어머니 자녀교육열 변량의 19%를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유의미하였던 월 소득($\beta = .34, p < .001$)이 역시 유의미하였고, 추가적으로 투입한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력($\beta = .19, p < .05$)과 어머니의 개인 내적 변인들 중에서 자아존중감($\beta = .17, p < .05$)이 유의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압력 및 어머니의 개인 내적 변인들이 자녀교육열 변량의 8%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자녀교육열 변량의 총 27%를 설명하였다. 이는 가구 월 소득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교육열이 높긴 하지만, 이러한 가구 월 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난 뒤에도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자녀교육열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더 높았다.

²⁾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의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486에서 .776의 분포를, 분산팽창요인은 1.283에서 2.058의 분포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변인들을 회귀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교육에 관해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압력 및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에 따라 측정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을 제외하고 목동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아현동에 거주하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의 인식 정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녀교육열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목동의 경우 '교육 특구' 라고 불리며, 최근에는 '목동 엄마들의 파워공부법' 이라는 도서가 나올 정도로 그 주변의 자녀교육열은 강북의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높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서 목동 어머니들이 아현동 어머니들에 비해 더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주변의 압력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목동이 아현동에 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높고, 가구 월 소득도 더 많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의 유의한 차이와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교육열에 관한 선행 연구들(정영숙, 1996; 주영량, 1992)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으며, 아버지의 직업 계층 또한 교육열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 및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와 같은 자녀교육열과 정적 상관이 있고, 전반적으로 목동이 아현동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교육동기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거주 지역이 사교육비 지출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나영미와 윤정혜(1999)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조건 뿐 아니라, 이웃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나 주변의 사교육 환경 등 거주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분위기가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목동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관해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 정도가 아현동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과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거주 지역에 따라 측정변인들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목동과 아현동 어머니들 모두 월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과시적 성향이 강할수록 자녀교육열이 높다는 공통된 결과가 나타났으나, 목동 어머니들은 대인관계에서 경쟁적 성향이 강하고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교육열이 높은 반면, 아현동 어머니들은 월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압력을 더 적게 인식

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목동과 아현동 어머니들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열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가계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교육열의 표출행위가 경제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열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교육받을 기회가 가계의 개별 능력에 맡겨진다면 교육 불평등이 야기되고 계층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노현경(2006)의 주장처럼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사교육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상적 차원의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대인관계에서 과시 성향이 강할수록 자녀교육열도 높게 나타난 본 결과는 과잉 교육열 현상이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사회적 과시 현상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손승영(2006)은 한국 사회에서 지위재생산과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도모하는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과시 현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교육에 대한 투자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구조와 신분상승을 꿈꾸는 욕망이 가족주의와 연결되어서 경쟁논리와 과시를 촉진시키는 과열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인들은 서구인에 비해 체면문화나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시키는 측면이 강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도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관계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겠는가' 하는 입장이 되므로 은연중에 타인과의 경쟁체제에 함께 돌입하게 된다. 즉 사회적 압력과 경쟁체제를 통해 과시가 강화되는 반복 재생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손승영,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어머니들이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드러내려는 과시적 성향이 강할수록 그 일환으로 '나도 너희들만큼 내 아이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자녀교육열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 중의 하나인 과시 성향이 자녀교육열의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의 사회적 과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과시 성향과 경쟁 성향이 거주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동 어머니들만이 교육열과 경쟁 성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결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의 어머니

니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고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거나 혹은 자신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과시를 한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회적 압력이 주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목동 어머니들의 경우 아현동 어머니들에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교육에 관해 주위의 사회적 압력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 성향이 더 촉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어머니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의 정도와 관련해서, 아현동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은 가정의 월 소득이 낮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인식하는 반면, 목동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압력 간에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지역별로 소득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월 평균 소득에서 목동과 아현동의 경우 약 140만원의 차이가 있고,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도 목동은 9.2%인 반면, 아현동은 28.7%로 상대적으로 아현동의 가구당 월 소득이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목동 안에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여도 남들 하는 만큼은 자녀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 반면, 아현동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은 자녀를 위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제한되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해주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감으로 주변 사람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셋째, 자녀교육열에 대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 및 어머니 개인 내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도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목동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열은 어머니 개인적인 특성이나 자녀교육에 관해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나영미와 윤정혜(1999)가 지적한 것처럼 동화소비의 메카니즘에 의한 획일성을 언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주변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만큼 자신의 자녀에게도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사교육 투자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어머니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도 없이 경쟁적 불안감에 의해 사교육에 매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가계소비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학부모의 경쟁적인 사교육 행위를 자제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현동 어머니들은 가구 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열이 높긴 하지만, 이러한 가구 월 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난 뒤에도 자녀교육에 대해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

적 압력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자녀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현동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자녀교육열이 높게 나타난 것은 김경근(2003)과 한지혜(2004)의 주장처럼 교육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독자적인 생각과 행위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즉 친구나 친지, 이웃 주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표출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열등감이 없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교육과과는 다른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 교육열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예상과 달리, 아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열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녀교육열이 과잉 교육열을 가진 집단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수직선상에서 점수가 높으면 교육열이 높음을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교육열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현동 어머니들의 높은 자녀교육열과 목동 어머니들의 높은 자녀교육열이 동등하지 않음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아현동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목동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 1의 결과에서도 목동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아현동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며, 실제로 자녀교육열 점수 상위 30%에는 목동 어머니들이 65.9%, 아현동 어머니들이 34.1%를 차지하였고, 하위 30%에는 목동 어머니들이 27.5%, 아현동 어머니들이 72.5%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목동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열이 높으므로, 아현동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자녀교육열이 어떠한 수준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나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교육열은 개념이 다양하고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정교화된 측정도구가 없으므로 앞으로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열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에서 자녀교육열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두 곳에서 중학교 두 곳을 표집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열과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미루어 더 다양한 지역에서의 자녀교육열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효과가 가설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압력에 휩쓸리지 않는 어머니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자녀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세울 때에는 그 가정이나 지역의 특

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다섯째, 자녀의 출생순위나 성, 어머니의 취업유무 등 어머니의 자녀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자녀교육열이 어떠한 변인의 영향도 받지 않는 맹목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이기적인 교육열에서 벗어나 자신이나 이웃, 지역사회, 국가 전체의 자녀교육을 생각하는 이타적 교육열로의 인식의 전환과,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내재적 교육동기에 기초한 교육열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의 풍토 조성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창동(1996). 한국 교육열의 사회학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8, 209-227.
- 김경근(2003).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교육학연구**, 41(4), 87-105.
- 김동석(1990). 한국입시경쟁에 대한 구조적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화, 이인효, 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희(1993). 자기존중감 수준과 안정성이 자기편향귀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수(2002). 대안학교 학부모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영미, 윤정혜(1999). 가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여부와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9-395.
-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류향곤(2004). 문화자본, 학업성취, 교육열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울특별시(2005). **서울통계 연보**. (www.seoul.go.kr에서 2007. 12. 18 인출함.)
- 손승영(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담론** 201, 9(2), 245-274.
- 안범희(1985). 대인관계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옥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정영숙(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1.
- 주영량(1992). 국민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경향 분석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추병식(1998). 집단 순응과 대리 만족의 교육열. **교육사회학연구**, 9(1), 17-30.
- 통계청(2004). 한국인의 사회지표. (www.nso.go.kr에서 2007. 12. 18 인출함.)
- 한국교육신문(2007. 8. 27일자). 가계 사교육비 매년 25% 급증... 효과는 글썄. (www.hangyo.com에서 2007. 10. 21 인출함.)
- 한성열(1994).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1), 95-107.
- 한지혜(2004).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열.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19-251.
- 헤럴드경제(2007. 10. 9일자). 강남 8학군 가고 신외고 학군 온다. (www.heraldbiz.com에서 2007. 10. 21 인출함.)
- 현 주, 이재분, 이해영(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and Company.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년 10월 31일 접수, 2007년 12월 21일 채택)